

KIA, 외국인 구성 마침표... ‘안정·지속·유연성’ 방점

‘검증된 선발’ ‘컨택트 기반 중장거리 타자’ ‘내야 안정화’ 숙제 해결

‘변화보다 연속성’...올리 재계약, 네일과 ‘윈투 펀치’ 한번 더
새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 ‘전 포지션 소화’ 수비 활용성 고려
아시아쿼터 데일, 수비 유연성 초점...신구 시너지 효과 기대



프로야구 KIA 타 이거즈가 2026시즌을 함께할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다. 올겨울 스토브리그 내내 이어졌던 ‘선박과 집중’ 기조 속에서, KIA는 검증된 선발 자원 유지, 중장거리 타자 보강, 아시아쿼터 내야 카드 확보라는 세 갈래 해답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KIA 구단은 지난 24일 외국인 투수 아담 올리와 총액 120만 달러(계약금 20만·연봉 70만·옵션 30만 달러)에 재계약을 완료했다.

이로써 올리는 ‘에이스’ 네일과 함께 내년 시즌에도 윈투펀치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올리는 올 시즌 KBO 리그 데뷔 첫해부터 선발 26경기에 등판해 팀 내 최다인 11승을 거뒀다. 149이닝 동안 169탈삼진을 잡아내며 9이닝당 탈삼진 10.21개를 기록했고, WHIP은 1.15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이닝 소화형은 아니었지만, 강한 구위와 삼진 능력을 앞세워 선발진에 분명한 기여를 남겼다.

KIA가 올리를 붙잡은 선택은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다.

새 외국인 투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이미 리그에 적응한 자원을 통해 선발 로테이션의 기본 틀을 먼저 안정시키겠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수 구성에서 ‘변화’보다 ‘연속성’을 택한 셈이다.

계약을 마친 후 올리는 “내년 시즌도 타이거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최고의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벌써부터 설렌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 팀의 도약에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타선에는 새로운 얼굴이 합류한다.

구단은 외국인 타자 해럴드 카스트로와 총액 100만 달러(계약금 20만·연봉 70만·옵션 10만 달러)에 계약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출신의 카스트로는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450경기를 소화하며 통산 타율 0.278, 391안타 16홈런, 156타점, 134득점을 기록한 타자다. 올 시즌에는 마이너리그 99경기에서 타율 0.307, 21홈런, 113안타, OPS 0.892를 남기며 장타력까지 증명했다.

단발성 ‘한 방’ 유형이 아닌, 컨택트 기반의 중



아담 올리

장거리 자원이라는 점에서 타선의 연결과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온 KIA의 외국인 타자 구상과 맞닿아 있다.

내·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 활용성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정 자리에 고정하기보다, 시즌 흐름과 조합에 따라 운용 폭을 넓힐 수 있는 카드다.

아시아쿼터 역시 박찬호 이적으로 발생한 공백과 맞물린 선택이다.

구단은 호주 국가대표 출신 내야수 제리드 데일을 총액 15만 달러(계약금 4만·연봉 7만·옵션 4만 달러)에 영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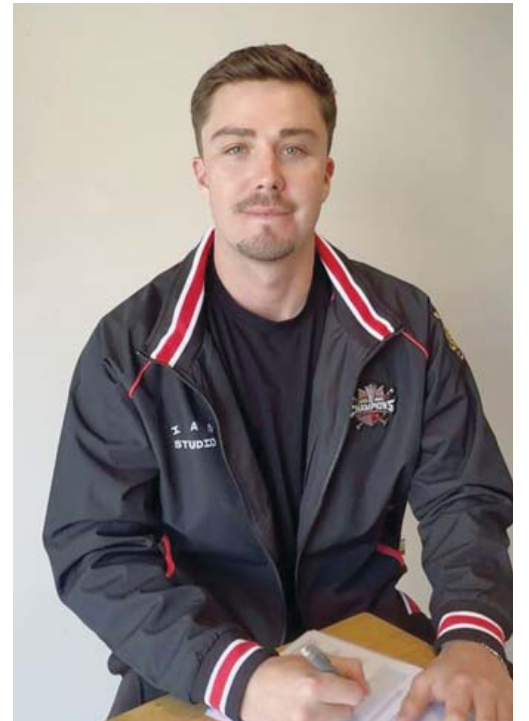


해럴드 카스트로

호주 메타버는 출신인 데일은 호주 ABL을 거쳐 마이너리그에서 6시즌을 소화했고, 올 시즌에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에서 육성 선수로 뛰며 2군에서 타율 0.297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열린 KBO Fall League에서도 타율 0.300로 꾸준함을 보였다. 내야 전 포지션 소화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갖췄다는 점은, 아시아쿼터 활용에 있어 KIA가 그려온 방향성과 일치한다.

KIA 구단 관계자는 “카스트로는 우수한 컨택트 능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을 겸비한 선수”라며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21홈런을



제리드 데일

〈KIA 타이거즈 제공〉

기록한 장타력까지 더해져 타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일에 대해서는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력과 경험을 갖춘 자원으로, 내야 유망주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국인·아시아쿼터 구성은 화려함보다는 구조를 먼저 세우는 선택에 가깝다.

선발진의 안정, 타선의 연결 고리, 내야 수비의 완충 장치. KIA가 올겨울 외국인 시장에서 꺼내든 답은 분명했다. 이는 당장의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전력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읽힌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새 사령탑에 이정규 전 수석코치

3년간 광주 수석코치 역임

구단 철학·팀 색채 높은 이해도



프로축구 광주FC가 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8대 감독으로 이정규 전 서울이랜드FC 수석코치를 선임했다.

광주는 “지난 24일 구단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 색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로 이정규 감독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광주FC만의 축구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이정규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광주FC 수석코치를 역임하며 내부 사정과 선수단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정규 감독은 만 30세의 이른 나이에 우석대 수석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이후 동의대, 중국 리장FC, 부경고, 충남아산FC, 광주FC, 서울이랜드FC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2022년 광주FC 수석코치 부임 이후 K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이정규 감독.

〈광주FC 제공〉

리그2 다이렉트 승격 및 우승, 2023년 K리그1 3위 달성과 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등 구단 역사에 남을 성과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정규 감독은 수석코치 역임 시절, 특유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이정규 감독은 “프로 감독으로서의 첫 출발을 좋은 기억이 가득한 광주FC에서 하게 돼 매

우 영광스럽다”며 “구단이 추구해온 방향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제 모든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주FC를 더욱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정규 감독은 코칭스태프 인선과 선수단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내년 1월5일 태국에서 1차 동계훈련에 나서며 담금질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연패 끊고 반등 신호탄 쏘라”

8연패 AI페퍼스, 오늘 ‘리그1위’ 도로공사와 맞대결

“연패 사슬을 끊고 반등의 신호탄을 쏘라”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6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에서 리그 1위 한국도로공사와 맞대결을 펼친다.

시즌 초 ‘홀 경기 무패’를 발판삼아 6승 2패로 돌풍을 예고했던 AI페퍼스는 이후 내리 8연패를 당하며 6위(6승 10패·승점 17)까지 추락했다.

초반 조이와 시마무라의 막강 화력을 앞세워 코트를 장악했던 AI페퍼스는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면서 세터가 흔들렸고, 단조로운 공격으로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잦은 범실마저 양산하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속공 플레이를 억제할 수 있는 위력적인 서브를 장착하지 못한 채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미들블로커가 높이에서 밀리며 손쉽게 세트를 내주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주포 조이에게 집중된 단조로운 공격, 경기 흐름을 끊는 수비 리시브 불안으로 어렵게 점수를 따고 쉽게 점수를 내주는 비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AI페퍼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AI페퍼스는 앞선 흥국생명과의 경기 이후 5일의 준비 기간 동안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응



정소연 AI페퍼스 감독이 지난 20일 열린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KOVO 제공〉

하는 전술 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실전에 나선 미들블로커 하혜진과 세터 이원정의 합류는 AI페퍼스만의 배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관건은 안정적인 리시브다.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이 해소된다면 세터가 다양한 토스 분배를 할 수 있고 조이에게 집중된 공격력도 다변화할 수 있다.

상대가 누구라도 AI페퍼스만의 빠르고 강한 배구가 살아난다면 승산은 있다.

AI페퍼스가 패배를 거울 삼아 침체된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젊은 날개’ 오하중 영입

빠른 발 장점 “측면에 속도 더한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측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고 역동적인 자원을 품었다.

광주는 25일 “선문대 출신 원어 오하중(23)을 영입하며 스쿼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하중은 빠른 발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자신감 있는 1대1 돌파 능력을 갖춰 측면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평가되며, 지난해에는 구단 소속 강희수·김동화와 함께 선문대를 대학 축구 4관왕으로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주 포지션은 윙포워드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측면에 균열을 일으키는 유형의 선수지만, 사이드백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오하중은 현재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내년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는 6월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해 출전할 수 있으며, 구단은 해당 기간 동안 선수의 적응과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실전 투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하중은 “동기인 강희수, 김동화의 프로 진출을 보며 큰 동기부여를 받았었는데 다시 같



광주 유니폼을 입은 오하중

〈광주FC 제공〉

은 팀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눈앞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구단과 팬 여러분의 믿음에 꼭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박희중 기자

2026 KLPGA 투어, 31개 대회 총상금 347억원

2026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총 31개 대회, 총상금 347억원 규모로 펼쳐진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지난 24일 2026시즌 투어 일정을 발표하면서 “정규 투어 대회 평균 상금은 약 11억2천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총상금도 지난해(346억원)보다 약 1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새 시즌엔 4개 대회가 새로 열린다.

내년 3월 태국에서 열리는 총상금 12억원 규모의 시즌 개막전(대회명 미정)과 내년 4월에 펼쳐질 총상금 10억원 규모 국내 개막전 더 시에나 오픈(가칭), 4월에 예정된 DB위민스 챔

피언십(가칭·총상금 12억원), 10월에 열리는 12억원 규모의 오픈 대회(대회명 미정)가 첫 문을 연다.

상금이 증액된 대회는 총 2개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된 10억원, 셀트리온 퀀츠 마스터즈는 지난해 12억원에서 3억원이 오른 15억원이 걸렸다.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대회는 셀트리온 퀀츠 마스터즈와 제48회 KLPGA 챔피언십,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제2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으로 각각 총상금 15억원이 걸렸다.

/연합뉴스